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연임수순… 내달 4일 확정

진옥동·정상혁·이선훈 등 후보 4명
해마다 사상최대 실적 기록행진
경영 연속성 등 ‘진 회장’ 연임 무게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사실상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수순이 예상된다. 내부에선 경영의 연속성과 실적호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지난 9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심층심의를 진행한 결과 4명의 후보군을 확정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비공개 외부 후보 1명이다.

곽수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추위 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계획 및 지배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일본동’ 진 회장 연임가능성 ↑

업계에선 진 회장이 첫 연임 도전에 나서는만큼 연임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도 사상최대 실적행

진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61년 2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진 회장은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뒤 오사카지점장과 일본 SBJ은행 사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신한은행장을 맡아오다 2023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

임했다.

특히 진 회장은 일본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력으로 재일교포 주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의 신한금융 지분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사상최대 실적 기록행진도 진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진 회장은 취임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다. 진 회장 취임 첫 해였던 2023년 4조 3680억원이었던 순이익은 2024년 4조 5175억원으로 3.4% 증가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순이익은 4조 4609억원으로 이미 2023년 한해 순이익을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한금융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5조 1257억원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지주 주식이 치도 급등했다. 1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22년 말 주당 3만5200

원으로 시가총액은 22조 1588억원에 수준이었다. 지난 18일 기준 주가는 7만 6400원으로 시총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 주가가 무려 117%나 급등한 셈이다. 기업가치를 그 만큼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 12월 4일 최종후보 결정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2월 4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후보의 성과와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발표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취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사 3분기 누적순익 11.3조, 15% 줄어

금감원, 보험회사 경영실적
손해율·계약 손실비용 상승 영향
생보사 8.3%, 손보사 19.6% 감소

올해 1~9월 보험회사들의 순이익이 1년 새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는 8% 이상 늘었지만 손해율 상승, 보험계약 손실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순이익이 악화되면서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이익이 크게 줄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 3102억원)보다 2조 191억원(15.2%)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4조 8301억원으로 8.3% 줄었고, 손보사는 6조 4610억원으로 19.6% 감소해 손보사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생보사의 경우 자산처분·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투자순이익이 4508억원 늘었지만,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순이익이 9534억원 악화되면서 전체 순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손보사도 투자순이익은 8808억원 개선됐으나, 손해율 상승 여파로 보험순이익이 2조 7478억원이나 줄어 들어 이익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보험영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보험료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조 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 4170억원으로 10.7% 늘었는데, 보장성보험(12.9%), 변액보험(1.3%), 퇴직연금(46.4%) 판매가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은 2.7% 줄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93조 9659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장기보험(7.0%)·일반보험(4.2%)·퇴직연금(16.9%)이 성장세를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1.8%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올해 1~9월 기준 전체 보험사의 총 자산이익률(ROA)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27%포인트(p) 떨어졌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6%로 1.

02%p 하락했다. 업권별로 ROA는 생보사가 0.69%(0.10%p ↓), 손보사가 2.32%(0.77%p ↓)로 나타났다. ROE는 생보사 7.56%(0.18%p ↑), 손보사 13.98%(3.28%p ↓)로 집계됐다.

재무 규모는 꾸준히 불어났다.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총자산은 1327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8조 3000억원(4.6%) 증가했다. 총부채는 1175조 9000억원으로 49조 1000억원(4.4%) 늘었다. 자기자본은 151조 3000억원으로 9조 1000억원(6.4%) 증가했다. 생보사는 자산 948조 3000억원·자기자본 88조 2000억원, 손보사는 자산 378조 9000억원·자기자본 63조 1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손해액 증가와 보험계약 손실비용 등으로 보험순이익이 악화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내성장 ‘주춤’ 카드사, 해외선 ‘호실적’

금감원, 3분기 주요 카드사 5곳
해외법인 11곳 중 8곳서 ‘흑자’

베트남 ‘호조’ 신한, 순익 총 119억
KB국민 총 58억, 롯데 66억 기록

국내 카드사의 해외법인이 올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과거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해외법인이 카드사의 실적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5곳(신한·KB국민·우리·롯데·하나)의 해외법인 11곳 중 8곳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해외법인의 3분기 총순익은 119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 법인인 신한베트남 파이낸스가 85억 1500만원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법인인 유한회사 신한파이낸스가 78억 8900만원, 인도네시아 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가 40억 5500만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다만, 미얀마 법인인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는 마이너스(-) 13억 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해외법인은 총 58억 4200만원의 흑자를 냈다. 태국법인인



서울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KB국민카드가 244억 8700만원, 캄보디아법인인 KB대한특수은행이 52억 39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법인인 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가 -238억 8400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롯데카드의 베트남법인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도 3분기 순이익 6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억 4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우리카드는 1~3분기 해외법인 누적 순익 28억 9900만원을 냈다.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가 3분기 누적 순익 54억 7900만원을 기록했으나, 미얀마 해외법인인 투투파이낸스가 -25억 8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족 5명은 돼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청약 최고가점 82점 84㎡A서 나와
최저점 75점… 평균점수는 78.4점

수 십 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최소 5인 가족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최고 가점은 82점이다.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신축 현장. /안상미 기자

(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자의 청약가

점 최저점은 70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워도 4인 가족으로는 당첨권에 들기 힘들었던 셈이다.

타입별로는 84㎡A가 최저점이 75점으로 당첨자 평균 점수가 78.4에 달했다. 59㎡A, 59㎡B는 모두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당첨자 평균 가점은 74점 안팎이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506세대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 3100만원, 84㎡ 27억 4900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 도모

우리은행은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영업점에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영업점 대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고령층 및 디지털 비이용 고객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취지에 맞춰 모바일과 인터넷 채널에서만 제공되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영업점 창구

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뱅킹 대면 서비스 오픈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객도 보유한 타 은행 계좌를 영업점 창구에서 등록 및 출금계좌로 지정해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기능을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